

##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회고와 전망: 현상학, 환원론, 문화론의 긴장

안 신  
(서울대 종교학과)

### 1. 서론

스코틀랜드 종교학은 지금까지 세계종교학계에 이론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해 왔다. 18세기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종교의 자연사□□(*The Natural History of Religion*, 1755)에서 종교의 기원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했고,<sup>1)</sup>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영웅들과 영웅숭배 및 역사의 영웅□□(*On Heroes and Hero 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1841)에서 이슬람의 사도 무함마드를 ‘진정한 예언자’로 간주하며 공감적인 평가를 시도했다.<sup>2)</sup> 이들의 연구는 당시 타종교들에 대한 ‘왜곡’된

주 제 어: 유형론, 종교학, 현상학, 환원론, 문화론, 스코틀랜드 종교학, 에딘버러, 아버딘, 글라스고, 스티어링

**Typology, Religious Studies, Phenomenology, Reductionism, Cultural Studies, Scottish Study of Religions, Edinburgh, Aberdeen, Glasgow, Stirling**

지식이 유포된 기독교 중심의 서구사회에서 종교의 ‘편견’을 지적하며 경험적이며 합리적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본격적인 현대 종교학이 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지성인들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개신교의 개혁교회(장로교회)가 ‘국교’로서 종교의 지형을 지배하던 스코틀랜드에 종교학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어났다. 1887년 아담 기포드경(Adam Lord Gifford)의 유언에 따라 기포드 강좌가 스코틀랜드의 대학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기독교의 성서적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추론에 기초한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을 스코틀랜드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교육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첫 번째 강연자로 ‘종교학의 아버지’인 막스 뮐러(Max Müller)가 초대되었다. 그는 □□자연종교(Natural Religion)□□, □□인류학적 종교(Anthropological Religion)□□, □□심리학적 종교(Psychological Religion)□□, □□물리적 종교(Physical Religion)□□를 연이어 발표했는데, 종교를 ‘무한에 대한 인식’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종교연구의 철학적 기반을 탐구했다.<sup>3)</sup> 그 후 앤드류 랭, 에드워드 타일러, 코르넬리우스 틸레, 윌리엄 제임스, 제임스 프레이저, 존 듀이, 나탄 쉐더블럼, 아더 녹크, 아놀드

- 
- 1) David Hume, *The Natural History of Religion* (1757)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56); *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 (1779) (Cambridge: Hackett, 1980). 데이비드 흄은 진자에서 다신교를 ‘미신’과 ‘환상’으로 평가하였고, 후자에서는 신 존재에 대한 목적론적 논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2) Thomas Carlyle,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1841) (London: Chapman and Hall, 1941), 42-77. 무함마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이슬람을 ‘모하멧교’로 잘못 인식했다.
  - 3) Lourens P. van den Bosch, *Friedrich Max Müller: A Life Devoted to the Humanities* (Leiden: Brill, 2002), 146-155, 428-480. 본 덴 보쉬의 지적처럼, 뮐러의 원숙한 종교학이 나타나는 기포드 강연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지금까지 세계종교학계에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학계에서도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토인비, 폴 킬리히, 로버트 재너, 니니안 스마트, 폴 리피르, 존 히, 리처드 스윈번, 라이문도 파니카, 메리 더글라스, 니콜라스 윌터스터프, 알빈 플란팅가 등이 종교학적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강연을 하였고, 최근 하버드대 인도종교전문가인 다이아나 엑크(Diana Eck)가 2008년 강연자로 지명되었다.<sup>4)</sup> 한편 엘리아테가 편집한 □□종교백사과전□□(*Encyclopedia of Religion*, 1986, 개정판 2005)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제임스 해스팅스의 □□종교와 윤리 백과사전(*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1907-1927)□□은 세계종교학계의 백과사전 분야에서 그 깊이와 완성도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해 왔다.<sup>5)</sup> 이러한 초기의 독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종교학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발전되어 온 국내 종교학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 종교학에 대한 현황과 평가가 거의 소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스코틀랜드 대학의 종교학과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과거와 현재를 유형론적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세계종교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온 ‘환원주의’와 ‘종교주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스코틀랜드 종교학계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분위기 아래 스코틀랜드 종교학자들은 현대의 급변하는 종교와 문화를 조우하며 어떻게 다양한 유형의 종교학들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영국종교학계에서 나타나는 종교학과 신학 사이의 관계와 영국종교학자들의 역사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개별종교학과와 형성과 발전을 역사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특히 교수진의 연구 성과 및 대표학자들의 연구경향을 함께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들로 분류할 것이다(① 현상학, ② 환원론, ③ 문화론). 여기서 분석의 대상은 세계종교학회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종교학회 회원과 영국종교학회 회원으로 그

4) <http://www.giffordlectures.org/>(2008년 3월 14일 접근). 지금까지 종교학자, 종교철학자, 종교사학자, 개별종교 신학자들이 주로 강연자로 초대되었다. 출판된 강연들은 세계종교학계의 중요한 연구업적으로 남아있다.

5) Eric Sharpe,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 (London: Duckworth, 1975), 133, 135-136.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 2. 영국 종교학사의 다양성: 신학과 종교학의 갈등?

스코틀랜드의 종교학 내부에 흐르는 다양한 연구경향들 사이의 긴장과 대결 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영국종교학자들 자신이 그들의 역사인, 영국 종교학사를 어떻게 기술해 왔는지 그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종교학회에서도 종교학자들 사이에 종교학의 목적과 종교학자의 학문적 태도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예를 들어, 종교연구 방법의 과학적 엄밀성에 대하여 2005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세계종교학회 세계대회에서 심각한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sup>6)</sup> ‘과학적’ 연구로서 종교학의 임무를 재확립하려는 북미종교학회의 학자들이 이러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테러나 가난과 같은 사회정의와 인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적’ 종교학을 지향하는 제 3세계 종교학자들과 충돌한 것이다. 북미학자들의 주장대로 종교학자는 ‘비평적 이론가’로 남아 종교를 분석하고 그 방법론을 향상시키는 학자로 남아 학문적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영국에서 연이어 일어나 테러와의 범세계적 전쟁,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절대빈곤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종교학이 ‘평화’ ‘정의’ ‘대화’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국제문제의 ‘해결사’ 혹은 ‘중재자’로서 등장하여 실천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대답되는 태도

---

6) 2005년 세계대회 후 영국종교학회 산하 에딘버러대 종교학과에서는 총회의 방법론적 변화와 긴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Shin Ahn,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2005 World Congress IAHR in Japan," Religious Studies Seminar, The University of Edinburgh, 10, 2005을 참조하라. 예를 들어, 학회 총회에서 ‘실천적’ 종교학자들(주로 신학자들)이 테러문제, 아프리카 기아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총회 차원에서 공식 선언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지만, ‘순수’ 이론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북미학자들의 강한 반발로 부결되었다.

는 지금까지 세계종교학계에서 계속되어 온 이론과 실천의 괴리, 종교학과 신학의 긴장, 환원주의와 종교주의의 갈등<sup>7)</sup> 등에서 보아 온 종교학 이론에 관한 논쟁사의 연장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종교학의 학문 성립 이래로 주장되어 오던 ‘신학적 교조주의’와 ‘사회과학적 환원주의’에 대한 종교학의 ‘학문적 독립성’의 여부가 여전히 세계종교학계 내부에서 첨예한 대립을 낳는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접근방법에 대한 학문적 차이는 종교학과 신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종교학의 역사’가 집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전통적으로 영국학계를 장악해 온 개신교 신학교육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종교학은 근대학문으로서의 ‘독립’을 선언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신학과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종교학과 신학 간의 관계에 대하여 영국의 종교학자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첫째로, 종교학을 특정종교의 호교학으로 인식하여 하위 학문분야로 포섭하는 유형이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 교육 가운데 실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의 한 분과로서 종교학을 교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 종교 연구에 대한 시대적, 학문적, 교육적 요청이 증대되면서, 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종교학자들을 대신하여 종교학을 교수할 때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하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변호하는 방식으로 종교학이 교수되어 ‘고백론적 종교학’이 등장하는 ‘종교학의 재신학화(再神學化)’를 초래하게 된다. 독립적인 종교학과가 설립되기 전에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대학들과 현재 세인트 앤드류스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신학적 종교학’이 교수되고 있다.<sup>8)</sup>

둘째로, 종교학을 상위 학문분야로 설정하고 그 아래 하위 분야로서 신학을 여러 방법과 전통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유형이다. 대학에 설치된 종교

7) Thomas A. Idinopulos and Edward A. Yonan, ed.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Leiden: E. J. Brill, 1994).

8) Eric Sharpe, *op. cit.* 133-134.

학과의 (신학자들과 협력하여) 개별종교전통들을 교수할 경우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과학부에 신학과 종교학이 함께 설치된 에딘버러대와 아버딘대의 경우, 기독교가 다양한 종교전통들 중의 하나로 교수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첫 번째 모델과는 달리, 종교학의 학문적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신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에딘버러대의 웨일링(Frank Whaling)은 종교학의 방법론으로서 신학과 함께, 철학, 인류학, 여성학, 현상학, 심리학, 사회학, 문헌학, 지역학 등을 균형 있게 교수할 것을 주장한다.<sup>9)</sup> 그는 ‘비교종교신학’의 분야를 제안하며, 종교학과 신학은 사실상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본다.<sup>10)</sup>

셋째로, 앞의 두 가지 유형과는 달리, 두 학문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유형이 있다. 종교학과 기독교 신학을 ‘완전히’ 분리하여 교수하고 연구하려는 유형이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인 신학교육을 극복하려는 영국의 신생 대학이 이러한 경향을 대표한다. 특히, 잉글랜드의 랑카스터대처럼, 스코틀랜드의 스텔링대에 설치된 종교학과가 이러한 유형을 대표한다. 물론 종교학과에서 교수하는 학자의 성향과 교육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지만, 전통적인 ‘고백적’ 신학방법과 함께, ‘초월’을 전제하는 ‘신학적’ 혹은 ‘종교철학적’ 쟁점을 종교학의 논의에서 가능한 배제하려고 한다. 최근 영국 종교학회에서 활동하는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최근 에딘버러대에서 웨일링의 후임이 된 종교현상학자 콕스(James Cox)<sup>11)</sup>가 이 입장을 대표한다.<sup>12)</sup>

9) Frank Whaling, "Theological Approaches," ed. by Peter Connoll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Cassell, 1999), 226-274.

10) Frank Whaling, *Christian Theology and World Religions: A Global Approach* (Hants: Marshall Pickering, 1986), 179. 웨일링은 캔트웰 스미스의 ‘세계 신학’을 지지하며, 개별 종교의 신학이 아닌 다양한 종교들의 비교 신학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1) James Cox, *A Guide to the Phenomenology of Religion: Key Figures, Formative Influences and Subsequent Debates* (London: T & T Clark, 2006); *Rational Ancestors: Scientific Rationality and*

이러한 세 유형 중에서, 20세기 영국 종교학의 역사는 종교학과 신학을 ‘분리’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sup>13)</sup>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 종교학의 연구사는 영국학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해석되고 기술되어 왔을까? 최근 출판된 두 가지 기념비적인 저서는 종교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하여 여전히 극명한 입장의 차이가 영국학계 내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먼저, 영국학술원은 학술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 영국에서 진행되어 온 ‘신학과 종교학’ 연구를 정리하였다.<sup>14)</sup> 1명의 여성을 포함한 11명의 학자가 공동 집필을 했는데 각각, 구약학, 신약학, 초기 유대교, 교

---

*African Indigenous Religions* (Cardiff: Cardiff Academic Press, 1998); *Rites of Passages in Contemporary Africa: Interaction between Christian and African Traditional Religion* (Cardiff: Cardiff Academic Press, 1998); *Expressing the Sacred: An Introduction to the Phenomenology of Religion* (Harare: University of Zimbabwe, 1992).

- 12) ‘비교종교학자’ 웨일링과 ‘종교현상학자’ 콕스는 종교학 방법론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신’이나 ‘초월’과 같은 신학적이며 종교철학적 주제도 종교학 담론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후자는 엄밀한 종교현상학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에딘버러대의 종교학이 보다 ‘세속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속적’ 종교학 이론에 관해서는 Tim Jensen and Mikael Rothstein, ed. *Secular Theories on Religion: Current Perspectives* (Copenhagen: Museum Tusulanum Press, 2000) 을 보라.
- 13)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의 프랭크 웨일링의 입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종교학과 신학을 구분하면서도, 완전 분리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보다 건전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종교학과와의 전통을 세워 온 에딘버러대의 신학부와의 ‘미묘한’ 관계를 시사해 준다. 2006년 신학부 졸업생 중 종교학 전공자(28명)가 신학 전공자(24명)를 앞질렀고, 최근 아프리카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신종교전문가들이 교수진에 합류하였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전통적인 신학 대신에 기독교가 ‘현상학적’으로 종교학자에 의해 교수된다는 사실이다.
- 14) Ernest Nicholson ed, *A Century of Theological and Religious Studies in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부학, 중세교회, 종교개혁, 18세기와 20세기 신학, 종교철학, 종교학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개신교 신학이 전체 분량의 거의 90퍼센트 이상을 점유한 가운데, 종교학은 신학의 ‘보조학문,’ 즉 신학의 ‘시녀’ 정도로 그 위치가 설정되어 매우 미미하게 기술되었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작은’ 종교학사조차도 종교학자가 아닌 종교 신학자인 키스 워드(Keith Ward)가 집필했다는 점이다.<sup>15)</sup> 집필진도 옥스퍼드대(7명), 캠브릿지대(2명), 셰필드대(1명), 에딘버러대(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 ‘종교학사’를 정리하고 기술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막스 뮐러, 에드워드 타일러, 제임스 프레이저, 로버트슨 스미스 등을 중심으로 19세기 종교학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 있지만, 종교학을 신학과는 구별하여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평가하지 않았다. 워드의 지적처럼, 영어권에서 종교학은 기독교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비교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교수되기 시작했다(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코넬대, 하버드대, 시카고대, 브라운대의 사례). 그리고 근대 ‘종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뮐러도 사실 ‘비교언어학’이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가? 정작 최초의 비교종교학 교수는 런던에 위치한 (이후 옥스퍼드대로 이전한) 유니테리안교 계통의 맨체스터 대학의 카펜터(Joseph Estlin Carpenter)였다. 이후 신학과 종교학의 학문적 영역의 뚜렷한 구분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현대 영국 종교학의 ‘원로’인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 1927-2001)가 1967년 잉글랜드의 랑카스터대에 종교학과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종교학이 신학의 보조학문으로 간주되어 왔던 전통이 깨어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영국 전역에 불어 닦쳤던 종교학과와 흑독한 감축한파는 지금까지도 영국종교학회에 큰 충격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스코틀랜드 아버딘대의 종교학과 교수였던 앤드류 월스는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회상한다.

15) Keith Ward, *What the Bible Really Teaches: A Challenge for Fundamentalists* (London: SPCK, 2004); *Christianity: A Short Introduction* (Oxford: Oneworld, 2000); *The Turn of the Tide: Christian Belief in Britain Today* (London: BBC Publications, 1987).

[1980년대 종교학과 연이은 폐쇄를 목격하며] 종교학에 대하여 굳이 어떤 음모(conspiracy)를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81년 이후에 모든 작은 학과[의 존립]이 의문시되었기 때문이다. [종교학 교수의] 은퇴, 사임, 질병 등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이 생존한 점과 상당한 가능성이 미래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sup>16)</sup>

위드는 한 세기 영국의 종교학사를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종교인류학, 종교현상학, 종교사회학, 종교철학, 종교신학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종교의 개념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니니안 스마트와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사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존 히크(John Hick)의 ‘다원주의적 가정’을 지지한다. 축의 시대 이후의 위대한 종교들의 신자들은 자기중심이 아닌 궁극적 실재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경험하고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위드는 앞으로 종교학은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이러한 신학자 중심의 영국 학술원의 접근방법과는 달리, 종교학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영국종교학회는 학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 경험적 연구□□(*Religion: Empirical Studies*)를 2004년에 출판하였다. 과거 영국종교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1세대 학자들(니니안 스마트, 어설러킹, 프랭크 웨일링 등)을 제외하고, 최근 중진학자들과 영국학회에 기초강연을 했던 유럽학자들의 연구물을 편집해 놓은 저서이다. 남성학자 중심으로 출판된 학술원의 저서와는 달리, 학자의 구성면에서도 18명의 학자 중 여성학자가 무려 8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방법론과 종교전통의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균형이 잘 잡혀 있다.<sup>17)</sup> 방법론 분야에서는 현상학, 현지조사, 미디어, 종교경험, 공동체 등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종교 전통 분야도 불교, 켈트 종교, 불교-기독교 관계, 토착종교, 아프리카 종교, 통일교, 이

16) Ursula King, ed. *Turning Points in Religious Studies* (Edinburgh: T & T Clark, 1990), 45.

17) Steven J. Sutcliffe, ed. *Religion: Empirical Studies* (Hants: Ashgate, 2004).

슬람 등의 연구가 다양한 영국사회의 현안문제와 결부되어 다루어졌다. 학자의 분포도, 옥스브릿지 그룹을 넘어, 잉글랜드(옥스퍼드, 런던, 브리스톨, 리스, 오픈, 울버햄프턴), 스코틀랜드(에딘버러, 오픈), 웨일즈(뉴포드, 램페터, 오픈), 독일(하노버), 덴마크(아후스), 네덜란드(헤이그, 유틀레히트), 가나(라고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요컨대, 영국종교학회는 현대과학으로서 종교학을 신학의 한 분과로서 간주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보조학문으로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소개한다. 현재 영국의 종교학자들은 현상학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현지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교사회학자이며 신종교전문가인 서클리프는 니니안 스마트가 강조했던 '통문화적이며 복합적 방법과 학제 간 연구'로서 종교학은 실제적인 연구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백적' 신학의 침투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그는 앞으로 영국의 종교학은 형이상학적 영역(종교철학)과 고백적 탐구(신학)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물질적 실천의 영역"으로 연구 분야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 영국종교학회 회장이며 종교현상학자인 콕스는 니니안 스마트의 전통종교의 범주를 너무 확대하여, 민족주의나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나타나는 종교성을 강조하는 연구 태도는 오히려 종교학의 범주를 넓히는 효과라기보다는, 종교학의 고유 영역을 '문화연구'나 '지역연구' 심지어 '신학연구'로 이양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결국 영국의 현대 종교학은 니니안 스마트의 방법론을 보완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제 세계종교학계에서 방법론과 이론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해 왔던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 3.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과거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초기 개척자들은 완고한 기독교(칼빈주의 개혁교회)

의 신학 전통과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성장했다. 전문적인 종교학자는 아니었지만, 법학자였던 존 맥레난(John McLennan, 1827-1881)은 고대사회의 친족·혼인 제도를 연구하면서 동식물숭배에 관심을 갖고, 토테미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의 친구이며 썸족 종교 전문가인 로버트슨 스미스(Robertson Smith, 1846-94)는 아버딘대 신학교수직에서 축출되어 잉글랜드 캠브릿지대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에릭 샤프는 스미스를 “(학문과 신앙의)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며,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희생양”으로 평가하였다. 스미스는 아버딘대와 에딘버러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당시 철학자와 신학자들과 폭넓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친구 맥레난의 도움으로 친족 제도와 토테미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북아프리카의 베드윈족에서 토테미즘의 증거를 찾고 동물숭배와 희생 제의와 관련된 저술을 연이어 출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외압에 못 이겨 아버딘대의 교수직을 떠나 캠브릿지대의 아랍어 교수가 되었다.<sup>18)</sup>

스미스는 캠브릿지대에서 또 다른 스코틀랜드 출신인, 글라스고대학 화학 교수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zer 1854-1941)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이후 □□황금가지□□(*The Golden Bough*)가 출판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프레이저는 맨체스터 대학에 신설된 영국 최초의 종교학 교수로 초빙되었지만 (성직자들을 교수하기에는 부적절한 신학적 입장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거절하고 캠브릿지대에서 고전학 교수로 남아 인류학과 종교학을 계속 연구했다. ‘안락의자 인류학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술, 신성왕권, 부활하는 농경신, 여신에 대한 연구는 종교학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sup>19)</sup>

타일러의 제자인 스코틀랜드 변방 출신의 앤드류 랑(Andrew Lang, 1844-1912)은 옥스퍼드의 교수로서 막스 뮐러와 자연신화학자들을 혹독하게 비

18) Eric Sharpe, *op. cit.* 75-82.

19) *Ibid.*, 87-94.

관하면서 ‘인류학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신화와 종교를 연구했고 특히 원시부족에 나타나는 ‘지고신’ 개념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샤프의 지적처럼, 그는 루돌프 오토보다 이미 먼저, 종교를 ‘누미노스의 감정’(sensus numinis)으로 규정하였다.<sup>20)</sup> 한편 앤드류 페어베른(Andrew Martin Fairbairn, 1838-1912)은 옥스퍼드대에 있는 회중교회 소속 맨스필드대에 초대 학장이 되어 비교종교학을 교수하였다.

제임스 레게(James Legge, 1815-1897)는 아버딘대에서 교육을 받고 말라카와 홍콩에서 런던선교회 선교사로 활동 후, 옥스퍼드대의 중국어 교수가 되었다. 그는 막스 밀러를 도와 □□동양의 경전들□□(Sacred Books of the East)을 번역하여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중국학자”가 되었다.<sup>21)</sup> 한편 인도 전문가인 존 파과(John Farquhar, 1861-1929)는 성취주의적 선교신학 이론을 널리 알렸고 맨체스터 종교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타종교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힌두교는 결국 기독교를 통해 ‘종교의 완성’에 이른다 고 보았다.<sup>22)</sup> 레게와 파과 모두 중국과 인도에서 비기독교문화와 종교를 연구한 후, 자신들의 모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 대신 각각 옥스퍼드대와 맨체스터대에 남아 삶을 마감하였다.

존 무어(John Muir, 1810-1882)는 인도 벵갈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힌두교와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했다. 그는 스코틀랜드로 귀국한 후에 에딘버러대에 산스크리트어 교수직을 신설하였다. 그의 동생 윌리엄 무어(William Muir, 1819-1905) 역시 벵갈에서 고위 공직을 거쳐 에딘버러대 총장(1885-1905)이 되었는데, 무하마드와 꾸란에 대한 연구로 이슬람학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보통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히브리어 교수가 신학교육 차원에서 아랍어를 함께 교수해 왔지만, 에딘버러대의 리차드 벨(Richard Bell)과 몽고메리 와트(Montgomery Watt, 1909-2006)의 노력으로

20) *Ibid.*, 58-65.

21) Andrew F. Walls, “Religious Studies in the Universities - Scotland,” Ursula King, ed. *Turning Points in Religious Studies* (Edinburgh: T & T Clark, 1990), 33.

22) Eric Sharpe, *op. cit.*, 151-154.

인문학의 독립된 분과로서 이슬람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한편 던컨 맥도날드(Duncan MacDonald, 1863-1943)는 29세의 나이로 미국의 하트포드 신학대학원에 교수가 되어 아랍어와 이슬람학을 가르쳤으며 □□이슬람 백과사전□□(*Encyclopaedia of Islam*)의 편찬에 크게 기여하였다. 윌스의 지적처럼, 종교학에 있어 보다 “중요한 스코틀랜드의 토착적 업적”은 바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였던 제임스 헤스팅스가 편찬한 □□종교와 윤리 백과사전□□ 일 것이다.<sup>23)</sup>

결국, 대부분 초기 스코틀랜드 종교학자들은 스코틀랜드에 남아 연구하기 보다는 본토를 떠나 잉글랜드와 미국 등지에 진출하여 세계종교학계에서 종교학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이론적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초기 경향과는 달리 보다 현대적 의미의 종교학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대영제국의 식민주의가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대두하기 시작했다.

#### 4.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현재

이제 스코틀랜드 현대 종교학의 현황을 검토해보자. 특정 종교학과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학과의 역사와 함께 소속된 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대략적인 발전의 과정과 연구 경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세 가지 유형의 종교학이 유서 깊은 스코틀랜드 대학인 에딘버러대, 아버딘대, 글라스고대와 신생대학인 스텐딩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밖에도 개방대학과 세인트 앤드류스대에도 종교학 연구자가 있지만, 그 규모가 작고 독특한 종교학적 연구경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sup>24)</sup>

23) Andrew Walls, *op. cit.*, 34.

24) 개방대학의 종교학 연구는 J. L. Cox and S. J. Sutcliffe, ‘Religious Studies in Scotland: A persistent tension with divinity,’ *Religion* 36 (2006), 22-23. 세인트 앤드류스대학의 종교학과는 기독교 중심의 신학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4.1. 비교종교학에서 종교현상학으로: 에딘버러대의 사례

지금까지 에딘버러대의 종교학은 하버드대 출신(캔트웰 스미스의 제자이며 동료)인 프랭크 웨일링(Frank Whaling)이 그 기초를 세웠고,<sup>25)</sup> 그의 후임자인 아버딘대 출신의 제임스 콕스가 그 전통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다. 장로교가 주도해 온 스코틀랜드대학에서 두 학자 모두 비국교도인(non-conformist) 감리교의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의 관심 분야와 연구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웨일링은 힌두교 전문가로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지향하는 비교신학(comparative theology)으로 종교학을 발전시켰고, 광의의 신학, 즉 세계신학(world theology)을 종교학 방법론의 하나로서 수용한다.<sup>26)</sup> 반면에 콕스는 신학적 방법을 수용하는 웨일링을 비판하며, 신학으로부터 종교학의 독립성을 다시 강조한다. 그는 여전히 ‘교조주의적’ 신학을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현상학적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아프리카 종교, 특히 토착종교와 샤마니즘을 연구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에딘버러대의 종교학은 ‘종교주의적’(religionist)

25) 웨일링의 종교학 방법론에 관한 대표저서는 Frank Whaling,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Humanities*, vol. 1 (Berlin: Mouton Publishers, 1984);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Social Sciences*, vol. 2 (Berlin: Mouton Publishers, 1985); *Theory and Method in Religious Studies: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Berlin: Mouton Publishers, 1995); “Theological Approaches,”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ed. by Peter Connolly (London: Cassell, 1999), 226-274.

26) 웨일링의 종교전통 연구에 관한 대표 저서는 Frank Whaling, ed. *The World's Religious Traditions: Current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Edinburgh: T & T Clark, 1984); *Christian Theology and World Religions: A Global Approach* (Hants: Marshall Pickering, 1986); *Religion in Today's World: The Religious Situation of the World from 1945 to the Present Day* (Edinburgh: T & T Clark, 1987).

27) James L. Cox, *From Primitive to Indigenous: The Academic Study of Indigenous Religions* (Hampshire: Ashgate, 2007)을 참조. 콕스는 자신의 짐바브웨에서의 교수경력을 기초로 종교학이론과 토착종교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며 ‘국제적’(global)인 특징을 나타내 왔다.<sup>28)</sup> 먼저, ‘종교주의’란 종교의 본질적 독특성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입장을 의미한다. 엘리아데의 ‘성스러움’(the sacred), 반 델 레우의 ‘힘’(power), 콕스의 ‘가치’(value)의 개념처럼 종교현상의 본질로서 초월과 신을 전제하고 이를 경험하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종교현상을 가능한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종교 현상에 대하여 그 종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관에 대하여 ‘판단정지’(에포케, epoché)를 시도하고, 종교인이 경험하는 삶의 정황과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으로 진입(empathetic interpolation)한다. 여기서 종교철학과 신학의 문제가 다루는 실제의 존재유무나 진위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자료가 계속 수집되면서 직관으로 파악한 종교의 의미는 항상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 결과도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 현상의 구조와 형태를 통하여, 의미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선입관의 배제라는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sup>29)</sup>

또한 ‘국제주의’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문화의 종교학 연구자들과 함께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경험을 상호 교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종교학계를 독점해 왔던 서구학자들의 편향된 종교연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서구학자들(non-Western scholars)의 관점이 연구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종교는 아프리카 종교학자들이, 아시아 종교는 아시아종교학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구학자들이 가질 수 없는 내부자(insider)로서의 입장으로, 동시에 학자로서 비평적인 연구 방법을 자기 자

28) J. L. Cox and S. J. Sutcliffe, *op. cit.*, 19. 필자는 아버딘대의 종교학적 이상이 1980년대 윌스와 세계기독교 연구소의 이동으로 에딘버러대에서 간접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콕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에딘버러대의 ‘국제적’이며 ‘비교신학적’ 방법론이 아버딘대의 ‘현상학적’이며 ‘토착종교’에 대한 강조와 결합하여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9) James Cox, *Expressing the Sacred: An Introduction to the Phenomenology of Religion* (Harare: University of Zimbabwe, 1996), 26-45.

신의 문화권의 종교에 적용함으로써, 외부자(outsider)로서도 편견 없이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종교학자 간의 교류와 협력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상호 교환하고 비판적 검증을 통해 종교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요컨대 콕스의 지적처럼, 종교현상학적 연구태도와 비서구적 관점이라는 연구경향은 에딘버러대 종교학 연구전통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30)</sup>

종교학과와 유래를 보아도, 에딘버러대 종교학과는 사실 신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에서 시작될 계획이었다. 1968년 이슬람학 교수였던 몽고메리 와트가 종교를 보다 과학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중립적 입장에서 인문학부 안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에딘버러대학 당국에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당황한 신학부는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종교연구는 신학부에서 담당하고 대신에 다양한 종교와 접근방법이 확장되어 신학부 안에서 교수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문학으로서 종교연구와 신학으로서 종교연구는 초기 제안 계획서 그 자체부터 벌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sup>31)</sup>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종교 문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종교 비판, 20세기 세계종교의 비교 등이 포함되어 있던 와트의 제안서와는 달리, 신학부의 제안서는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과 목이었던 성서학, 교회사, 교리사, 윤리학만이 나열될 뿐, 세계종교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종교학과를 신학부 안에 수용한 제안의 배경에는 당시 신학부의 학장인 맥킨타이어(John McIntyre)의 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sup>32)</sup>

30) 필자가 에딘버러대에 수학하는 동안에도, 북미와 유럽대륙은 물론 인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종교학자들이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종교학 세미나를 제공했다.

31) J. L. Cox and S. J. Sutcliffe, *op. cit.*, 14-15.

32) Frank Whaling, "Religious Studies," ed. by David F. Wright and Gary D. Badcock, *Disruption to Diversity: Edinburgh Divinity 1846-1996* (Edinburgh: T & T Clark, 1996), 151-165. 웨일링에 따르면, 에딘버러대의 초기 종교학은 옥스퍼드대와 캠브릿지대의 모델을 따라 신학부에 종교학을 첨가해가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1971년과 1973년에 각각 종교학 전공 학사과정(BA)과 석사과정(MA)이 처음으로 신학부 안에 개설되었다. 이후 1972년에 종교학 방법론과 종교 전통에 대한 균형 있는 교과과정이 (산스크리트어, 사회인류학, 철학 전공교수들이 참여한 위원회의 제안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종교전통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힌두, 아프리카 종교 등이 포함되었고, 방법론으로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이 함께 교수되었다.<sup>33)</sup> 웨일링(Frank Whaling)이 종교학과 학과장(convener)이었던 1973년에, 신학 전공자가 40명이 입학하여 36명이 졸업한데 비하여, 종교학 전공자는 겨우 8명이 입학하여 그 중 4명이 졸업하였다.<sup>34)</sup> 1980년대 중반에 학제 간 연구가 이슬람학 교수인 와트와 산스크리트어 교수인 브로킹톤(John Brockington)의 노력으로 활발해지면서, 예술학부,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등이 종교학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학제 간 연구와 학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신학적 종교학’은 서서히 ‘인문사회과학으로서의 종교학’으로서 그 궤도를 바꿀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에딘버러대 종교학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그것은 1987년 아버딘대의 종교학과장이었던 월스(Andrew Walls)가, 그리고 1988년 글라스고대 종교학 교수인 키(Alistair Kee)와 와이어트(Nick Wyatt)가 에딘버러대로 모두 이동하게 된 것이다. 월스는 토착종교(primal religions)를, 키는 유물론적 종교관을, 와이어트는 이집트종교를 강의하였다. 월스는 이 시기를 에딘버러대 종교학과의 “대전환”(major re-direction)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기독교 연구를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인 신학연구가 국제적 상황(global context)에서 세계종교들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사에 대한 연구와 교수도 더 이상 서양기독교보다는

33) 에딘버러대에서는 세계종교전통을 먼저 공부한 후, 점차로 방법론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방법론이 종교현상을 이해하는데 ‘편견’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34) 필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튜터(Tutor)로 강의한 ‘세계종교’(Religion 1)와 ‘종교학 방법론’(Religion 2)은 평균 120명과 60명 정도의 학생이 수강했다.

비서구 기독교에 대한 국제적 연구로 확대 되었다.<sup>35)</sup>

종교 전통의 측면에서도 이슬람, 샤마니즘, 힌두교, 유대교, 세계기독교, 신종교<sup>36)</sup> 등을 가르치는 교수가 영입되었고,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비교종교학,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종교현상학, 종교인류학 등이 교수되고 있다. 특히, 웨일링이 1999년 은퇴한 뒤 종교학과 교수가 된 후임자 콕스는 웨일링의 신학적이며 대화적인 비교종교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엄밀한 종교현상학적 연구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한편 종교사회학자인 서트클리프와 종교인류학자인 오펜쇼와 코핑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적 종교인류학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있다.<sup>37)</sup>

2003년 에딘버러대의 종교학과는 신학부에서 인문사회과학부로 통합되었다. 지난 30년간 종교학을 관할하던 신학부가 독립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인문사회과학부로 전환되면서, 과거 종교학과와 초안자였던 와트의 제안이 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다. 이전의 신학 중심의 학과도 7개에서 4개 영역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종교학은 성서학, 신학과 윤리, 교회사와 나란히 전공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종교학과에는 7명의 교수진이 종교학 전공을 교수하고 있다. 최근에 비교신학을 주창해 왔던 웨일링이 은퇴한 후, 기독교-이슬람 비교 전문가인 커(David Kerr)가 스웨덴 룬드대로 이동하면서, 신학과 종교학의 학제 간 연구는 보다 엄밀한 종교학으로 변화하였다. 신학적 연구와 종교학적 연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제공되고 있는 ‘세계종교로서의 기독교 역사’ 강의는 이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sup>38)</sup>

35) Frank Whaling, *op. cit.*, 1996, 161-163.

36) Steven J. Sutcliffe, *Children of the New Age* (London: Routledge, 2003).

37) 에딘버러대 종교학과 교수진의 관심과 저서에 관해서는 <http://www.div.ed.ac.uk/religiousstu.html>를 참조하라, 신학부의 박사과정 영역은 성서학 전공, 교회사 전공, 신학과 윤리 전공, 종교학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38) 콕스는 종교학이 신학부에 포함되어 있는 한, 기독교를 타종교처럼 ‘종교학/종교현상학’적으로 자유롭게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 년 단위로 개설되는 ‘세계기독교’ 강의는 전

요컨대 에딘버러대의 종교학은 설립 이후, 방법론과 전통분야에서 그 균형을 맞추어 가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숙을 거듭해 왔다. 또한 신학부 안에 존립해 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과학부로의 학제가 재개편되면서 학제 간 연구를 통한 새로운 종교연구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엄밀한 종교학적 연구가 기독교 연구에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신학과 종교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종교학자 사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에딘버러대의 종교학과 자체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결국 웨일링이 도입한 세계 신학을 기초로 한 비교종교학은 콕스의 종교현상학적 토착종교 연구로 다시 한 번 보강되었고, 아버딘대 종교학과에서 에딘버러대 신학부로 이동한 세계기독교연구소는 기독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 4.2. 사회과학과 신학의 환원론: 아버딘대와 글라스고대의 사례

에딘버러대의 종교학이 신학부와의 긴장과 갈등 속에 지속적인 자기 정체성을 모색해 온 것과는 달리, 최근 종교학과가 다시 설립된 아버딘대와 글라스고대는 다른 유형의 종교학을 전개하고 있다. 아버딘대는 로버트 씨갈(Robert Sega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적 환원주의’로, 글라스고대는 자스퍼와 슈미트-로이켈을 중심으로 ‘신학적 환원주의’로 그 정체성을 구축해나가고 있다.<sup>39)</sup> 신학적 교조주의와 사회과학적 환원주의를 경계하는 종교 현상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학과 폐쇄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아버딘대와 글라스고대의 종교학과는 이전에 유지했던 종교주의의 입장은 포기한

---

반부는 기독교 신학자들의 주도로, 후반부는 종교학자들이 주도로 각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긍정적인 보완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39) 스코틀랜드에서는 학자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여, 매년 종교학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연례 모임과 학회가 학과의 재정적 지원 아래 이루어지며, 글라스고, 세인트앤드류스, 에딘버러, 스텔링, 아버딘이 참여하고 있다.

채,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환원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영국종교학회뿐만 아니라 세계종교학회에서 아버딘대 종교학과 출신은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sup>40)</sup> 최근까지 영국종교학회 회장이었던 콕스는 아버딘대 출신으로 앤드류 윌스의 제자이며 아프리카 지바브웨 대학에서 종교현상학을 가르친 아프리카 종교 전문가이다. 현 세계종교학회장인 로살린 핵켓(Rosalind Hackett) 역시 아버딘대 출신으로 아프리카종교 특히 신종교운동 전문가로 인류학적 접근을 선호해 왔다.<sup>41)</sup> 콕스는 에딘버러대 종교학과 교수로 취임하면서, 아버딘대의 종교학의 이상이 결국 에딘버러대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아버딘대 종교학과가 폐쇄된 뒤, 종교학이 신학부로 편입되어 ‘신학과 종교학’(Divinity and Religious Studies)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된 사실이다. 종교현상학적 종교주의를 지지했던 아버딘대의 종교학과는 이제 사회과학적 환원주의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전술한 에딘버러대에서 종교학과 설립이 논의되고 있던 가운데, 아버딘대는 앤드류 윌스의 주도 아래 1970년에 종교학과를 먼저 설립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에딘버러대의 종교학과처럼 신학부 안에 설립하지 않고, 인문사회과학부 안에 종교학과를 설립했다는 사실이다. 윌스의 역사가자로서의 성향은 바로 구 아버딘대의 종교학과가 지닌 성향에 상당히 반영되었다. 이론 중심의 종교학보다는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종교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종교학적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연구대상을 서양기독교가 아닌,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등의 기독교로 확대시킴으로써, 오랜 신학 전통을 갖고 있는 아버딘대 신학부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40) 아버딘대 종교학과 출신으로는 현 세계종교학회회장인 핵켓과 전 영국종교학회장인 윌스와 콕스 등이 있다.

41) Rosalind I. J. Hackett, *Art and Religion in Africa* (New York: Cassell, 1996); *Religion in Calabar: the Religious Life and History of a Nigerian Town* (Berlin: Mouton de Gruyter, 1989)를 참조하라.

되었다. 초대 학과장 윌스의 아프리카 선교 경험과 역사학자로서의 경향은 1982년 ‘비서구지역의 기독교 연구를 위한 연구소’(Centr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in the Non-Western World)를 종교학과 내에 설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영입된 그의 종교학과 동료들도 주로 아프리카로부터 왔다. 무신론(공산권) 종교이론가 트로워(John Thrower)<sup>42)</sup>, 신종교 전문가 터너(Harold Turner)<sup>43)</sup>,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가 해스팅스(Adrian Hastings)<sup>44)</sup>, 이슬람 전문가 썬네(Lamin Sanneh) 등이 종교학과 교수진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차고 혁신적인 윌스의 비전은 아버딘대 종교학과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0년 초부터 불거진 정부재정긴축은 결국 1986년에 아버딘대의 종교학과를 폐쇄시키고 말았다. 정부의 재정삭감이 주원인이었지만, 종교주의자와 신학자와의 갈등이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5)</sup>

구 아버딘대 종교학과의 성향은 윌스의 동료였던 라민 썬네에게도 나타난다. 서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이며 이슬람 전문가인 썬네는 종교역사가이며, 아프리카 종교 전문가이고 비교종교학자이다. 그는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이슬람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이바단, 포라 베이, 레곤 등 서아프리카의 대학들에서 이슬람과 세계종교를 교수하였고, 스코틀랜드의 아버딘대를

42) James Thrower, *Religion: The Classical Theorie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9); *Marxism-Leninism as the Civil Religion of Soviet Society: God's Commissar*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92); *The Alternative Tradition: Religion and the Rejection of Religion in the Ancient World* (The Hague: Mouton Publishers, 1980).

43) H. W. Turner, *History of an African Independent Church: The Church of the Lord(Aladura)*, vol. 1 (Oxford: Clarendon Press, 1967); *African Independent Church: The Life and Faith of the Church of the Lord, (Aladura)*, vol. 2 (Oxford: Clarendon Press, 1967).

44) Adrian Hastings, ed. *A World History of Christianity* (London: Cassell, 1999).

45) 구아버딘대 종교학과가 폐쇄된 이후에 최근 재생하기 전까지 신학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종교학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Helen K. Bond Seth D. Kunin and Francesca Aran Murphy, ed. *A Companion to Religious Studies and Theolog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3)을 참조.

거처 하버드대(세계종교연구소)에서 종교학교수를 역임하였다.<sup>46)</sup> 그는 현재 예일대로 이동하여 아프리카종교연구,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기독교, 서아프리카의 기독교,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희생제의 연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의 관심은 아프리카 문화의 정황 가운데 나타나는 선교종교로서의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는 반 델 레우와 찰스 롱의 현상학적이며 해석학적 태도를 채용하면서도, 역사학자로서 문헌자료를 분석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새로 재건된 아버딘대의 종교학은 역사학자와 현상학자가 아닌, 주로 사회과학자가 주도하게 되었다.<sup>47)</sup> 미국 시카고대의 엘리아데와 에딘버러대의 웨일링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 온 씨갈이 2006년 아버딘대의 종교학교수로 부임하면서 한층 더 환원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sup>48)</sup> 프로이트와 융 전문가이며 신화 이론가인 씨갈에 따르면, 사회과학적 종교 읽기가 종교현상학의 대안이다. 그는 종교현상을 종교인의 관점에서 승인하고 단순히 기술(description)하는 종교현상학에 기초한 종교주의적 종교학 연구 전통은 하루속히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는 분석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적 환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종교를 설명(explanation)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설명의 과정에서 종교인들이 종교학자의 연구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진정한 과학적 종교학은 나름대로 이성적 추론과 경험적 체계를 통하여 종교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 참신한 방법론을 제시하면 된다. 씨갈은 사회과학적 설명을 환원주의라고 비판하는 종교현상학적 전통에 기반을 둔 종교주의자들, 특히 엘리아데와 웨일링을 종교학의 가면을 쓴 ‘설교자’(preacher)라고 비판한다.<sup>49)</sup>

46) 씨갈의 대표적인 비교종교연구서는 Lamin Sanneh, *Piety and Power: Muslims and Christians in West Africa* (Maryknoll: Orbis Press, 1996); *The Crown and the Turban: Muslims and West African Pluralism* (Boulder: Westview Press, 1997)을 참조.

47) J. L. Cox and S. J. Sutcliffe, *op. cit.*, 11-12.

48) Robert Segal, *Religion and the Social Sciences: Essays on the Confrontation* (Atlanta: Brown University, 1989).

글라스고대의 현대 종교학은 에딘버러대와 아버딘대보다 사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61년부터 이미 종교의 원리(Principles of Religion)를 갤로웨이(Allan Galloway, 1920-2006)<sup>50)</sup>가 교수했고, 그를 이어 종교현상학 전통을 강조하며 앨리스테어 키<sup>51)</sup> 등의 종교철학자들을 영입하였다. 그리고 닉 와이어트<sup>52)</sup>가 인도와 근동 종교를 가르치면서 더욱 활기를 얻어갔다. 키와 와이어트는 1988년 글라스고대에서 종교학과의 폐쇄될 때까지 종교학을 교수하다가 그 이후 에딘버러대 종교학과로 자리를 이동했다.<sup>53)</sup> 재정긴축을 이유로 글라스고대는 신학부 혹은 철학부로 종교학과를 통폐합하려 했고, 스텔링대 종교학과에서도 초빙 제안을 받았지만, 키와 와이어트는 당시 에딘버러대 가톨릭 학장인 제임스 맥케이(James Mackey)와 협의하여, (다시는 글라스고대에서 종교학을 교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에딘버러대의 종교학과로 이전했다.<sup>54)</sup> 그러나 2년 뒤 글라스고대는 종교학과를 신학부

49) 씨같은 그의 선임자였던 큐닌(Seth Kunin)처럼 유대인이다. 필자는 학자의 종교적 정체성(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이 그의 학문적 태도와 연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종교 현상학 전통에서 (종교)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편견’과 ‘경험’이 ‘가능한 한’ 절제하여 판단을 중지해도, 완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교현상학은 계속적인 검증과 재검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0) 갤로웨이는 글라스고대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유니온신학대학에서 톨리히와 조지신학을 연구했다. 캠브릿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다. 1954년부터 나이지니아의 아바단대학 종교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이후, 글라스고대학의 교수(1966-1982)가 되었다.

51) Alistare Kee, *Marx and the Failure of Liberation Theology* (London: SCM Press, 1990); *Nietzsche against the Crucified* (London: SCM Press, 1999); *The Rise and Demise of Black Theology* (Hants: Ashgate, 2006)를 참조.

52) Nick Wyatt, *The Mythic Mind: Essays on Cosmology and Religion in Ugaritic and Old Testament Literature* (London: Equinox, 2005); *Space and Time in the Religious Mind of the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1); *Myths of Power: A Study of Royal Myth and Ideology in Ugaritic and Biblical Tradition* (Muster: Ugarit-Verlang, 1996).

53) Andrew Walls, *op. cit.*, 40-41.

54) J. L. Cox and S. J. Sutcliffe, *op. cit.*, 13.

안에 재건했다. 두 명의 이슬람학자, 씨디키(Mona Siddiqui)와 리전(Lloyd Ridgeon)과 함께, 종교다원주의자이며 조직신학자인 슈미트-로이켈(Perry Schmidt-Leukel)<sup>55)</sup>이 세계종교를 교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양종교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이슬람과 유대교를 기독교와 함께 편중시켜 교수하기 때문에, 종교전통과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종교학 연구와 교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sup>56)</sup>

요컨대 아버딘대와 글라스고대의 종교학 전통은 신학부 안에서 다시 재건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종교현상학적 연구 전통과는 달리 각각 사회과학과 신학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일시적인 폐쇄를 경험하며 다시 재건된 두 대학의 종교학과는 인문학의 맥락에서 종교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지향하던 이전의 전통은 사라진 것 같다. 이제 아버딘대는 사회과학에 중점을 두고, 글라스고대의 경우에는 신학과 학제 간 연구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유형의 종교학은 전통적인 신학교육의 요람인 스코틀랜드 신학대학들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종교학과 설립의 대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4.3. 문화론과 과학적 종교학: 스티어링대의 사례

니니안 스마트가 잉글랜드에 설립한 랑카스터대 종교학과와 경우처럼, 스

55) Perry Schmidt-Leukel, ed. *Buddhism, Christianity, and the Question of Creation* (Aldershop: Ashgate, 2006);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Dialogue* (Norwich: SCM Press, 2005); *War and Peace in World Religions* (London: SCM Press, 2004).

56) 이 밖에도 ‘종교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자스퍼(David Jasper) 교수가 국제학회와 학제 간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적 경향이 지배적이라 ‘비교종교학적’ 혹은 ‘현상학적’ 관점이 미약하다. David Jasper, *Readings in the Canon of Scripture* (London: Macmillan Press, 1995); *Images of Belief in Literature* (London: Macmillan Press, 1984); S. Brent Plate and David Jasper, *Imagining Otherness: Filmic Visions of Living Together* (Atlanta: Scholars Press, 1999); Robert Detweiler and David Jasper, ed. *Religion and Literatur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코틀랜드에 새로 설립된 스티어링대도 전통적인 신학의 교조주의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종교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신학을 대신하여 종교철학을 중심으로 1970년대의 교수진을 영입하였다. 이후 점차로 성서학인 신약학과 구약학(Hebrew Bible), 동양종교인 힌두교와 일본종교 등의 교수진이 추가되었고, 1980년부터 학과 자체에서 □□스코틀랜드 종교학 저널□□(*Scottish Journal of Religious Studies*)을 출판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 폐간할 때까지 이후 20년간 발간하였다. 이후 보킹(Brian Bocking)과 리더(Ian Reader)가 일본종교를 교수하다가, 각각 잉글랜드의 런던대와 랑카스터대로 이동하였다. 또한 인류학적 접근방법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지형에 대한 민족지학적이며 다문화적 연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나이(Malory Nye)도 아버딘대의 던디 캠퍼스에 있는 이슬람연구소로 이전하였다.<sup>57)</sup> 지금은 2000년에 부임한 플러드(Gavin Flood)가 주임교수로 종교현상학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토대로 주로 힌두교를 교수하고 있다.<sup>58)</sup> 이어 2001년에 영입된 피츠제랄드(Timothy Fitzgerald)가 보킹과 리더의 후임자로 일본종교를 교수하며, 특히 서구적인 ‘종교’ 개념에 대한 문화비평적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sup>59)</sup> 따라서 현재 스티어링대의 종교학은 스코틀랜드 종교학과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신학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를 지니고 있고, 과학적 종교학을 지향하며 종교학의 연구대상인 종교의 서구적 개념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토대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로서의 종교학에 집중하고 있다.<sup>60)</sup>

57) Malory Nye, *Religion: The Basics* (London: Routledge, 2003); *Multiculturalism and Minority Religions in Britain* (Richmond: Curzon, 2001).

58) Gavin Flood, *The Ascetic Self: Subjectivity, Memory, and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Beyond Phenomenology: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Cassell, 1999); *An Introduction to Hindu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플러드는 스티어링대 교수로 있으면서 동시에 옥스퍼드대의 힌두교 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59) Timothy Fitzgerald, *The Ideology of Religious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플러드는 “비판적 종교학”(critical religious studies)을 주창하며 다음 네 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이 제언들은 현재 스티어링대의 종교학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첫째로, 종교학의 주요 쟁점들은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초해야 하고, 특히 언어와 문화의 위치를 중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 연구보다는 팀 연구를 선호하며 역사, 문헌, 인류학에 관련된 방법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종교학 이론 연구에 대한 보다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플러드는 종교이론에 대한 담론이 “대화적인 반성”(dialogically reflective)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문사회과학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역사적 한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교이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종교현상을 설명하는 거대이론의 담론보다는 일정한 영역과 지역의 종교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에 제한된 그러나 효과적인 대안 담론의 이론적 형성을 추구해야 할 때로 본다. 셋째로, 그는 의식에 대한 현상학적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 델 레에우와 엘리야데로 대표되는 종교현상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일부 인정하지만, 지나친 거대담론의 유포로 인하여 종교현상의 구체적 역사성과 독특성이 희석되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넷째로, 플러드는 문헌연구보다는 인류학적 접근에 기초한 현지조사를 강조한다. 구체적인 문화연구로서 종교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종교현상학적 유형론보다 더 효과적인 종교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sup>61)</sup>

## 5. 결론

요컨대 스코틀랜드의 초기 종교학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 종교학

60) J. L. Cox and S. J. Sutcliffe, *op. cit.*, 19-22. 스티어링대의 다른 종교학 교수진들은 “종교와 문학”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에 기초를 둔 연구를 하고 있다.

61) Gavin Flood, *Beyond Phenomenology: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Cassell, 1999), 234-237.

계의 이론 발달에 큰 기여를 했지만, 정작 스코틀랜드 내부의 종교학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 했다. 이 문제는 바로, 종교학의 주체인 연구자가 처해진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종교학을 어느 공간, 즉 어느 나라 혹은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 종교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의 강조점에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16세기 가톨릭교회를 무력으로 개혁한 존 녹스의 공격적인 칼빈주의 영향 아래, 여전히 장로교를 국교(state church)로 인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 소속의 성직자를 양성하고 전통적인 스코틀랜드신학을 전승해 온 고등교육의 요람인 대학들에서 현대 종교학이 태동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종교학을 시작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스코틀랜드의 토양을 이미 깨달았던, 1960년대와 70년대 종교학자들은 신학으로부터 종교학의 학문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신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에서 종교학과를 개설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대학보다 먼저 과감하게 인문대에 종교학과를 설치하였던 아버딘대와 글라스고대는 1980년대 후반에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으로 폐쇄되었고, 그나마 신학대 안에서 시작된 에딘버러대와 교과적 색채 없이 신설된 스텔링대에서만 중단 없이 종교학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스코틀랜드 종교학의 가까운 미래를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로, 에딘버러대의 종교학은 ‘종교주의’(religionism)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 왔다.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을 교수해 온 신학부의 영향 아래에서, 종교학과는 ① 웨일링의 비교종교학, ② 월스의 아프리카 토착종교와 세계기독교 연구, ③ 콕스의 현상학적 연구와 현지조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세 학자 모두 비국교인 감리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인도와 아프리카라는 타문화권에서 장기간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앞으로 콕스를 중심으로 에딘버러대 종교학은 사회과학적 환원주의와 신학적 교구주의를 종교학 방법론으로부터 뚜렷이 구분하려는 종교현상학적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웨일링과

월스가 신학과의 화해를 모색했던 방식과는 다른 선택이 될 것이다.

둘째로, 1980년대 후반에 폐쇄되었다가 다시 설립된 아버딘대와 글라스고대는 각각 사회과학과 신학으로 회귀하는 환원주의적 연구 경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버딘대의 분위기는 본질주의적 현상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류학, 사회학, 심층심리학 등의 사회과학적 연구 경향으로 보다 발전할 것이며, 반면에 글라스고대는 신학적 문학 혹은 영화 읽기, 종교 간의 대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학제 간 연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셋째로, 설립초기부터 신학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스텔링대는 동양종교(일본종교와 힌두교 등)를 중심으로 서구의 ‘종교’ 개념에 대한 메타이론적 의문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종교학 방법론을 심화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강조하는 문화와 역사의 다양성과 맥락의 중요성을 고려한 종교학은 앞으로 문학과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 나타나는 신선한 종교 읽기를 시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 Cox, James(2007), *From Primitive to Indigenous: The Academic Study of Indigenous Religions*, Hampshire: Ashgate.
- Cox, James(2006a), *A Guide to the Phenomenology of Religion: Key Figures, Formative Influences and Subsequent Debates*, London: T & T Clark.
- Cox, James and S. J. Sutcliffe(2006b), 'Religious Studies in Scotland: A persistent tension with divinity,' *Religion* 36, 1-28.
- Cox, James(1998a), *Rational Ancestors: Scientific Rationality and African Indigenous Religions*, Cardiff: Cardiff Academic Press.
- Cox, James(1998b), *Rites of Passages in Contemporary Africa: Interaction between Christian and African Traditional Religion*, Cardiff: Cardiff Academic Press.
- Cox, James(1992), *Expressing the Sacred: An Introduction to the Phenomenology of Religion*, Harare: University of Zimbabwe.
- Fitzgerald, Timothy(2003), *The Ideology of Religious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lood, Gavin(2004), *The Ascetic Self: Subjectivity, Memory, and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ood, Gavin(1999), *Beyond Phenomenology: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Cassell.
- Flood, Gavin(1996), *An Introduction to Hindu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dinopulos, Thomas A. and Edward A. Yonan, ed. (1994)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Leiden: E. J. Brill,
- Jensen, Tim Jensen and Mikael Rothstein, ed.(2000), *Secular Theories on Religion: Current Perspectives*, Copenhagen: Museum Tusulanum Press.
- King, Ursula. ed.(1990), *Turning Points in Religious Studies*, Edinburgh: T & T Clark.
- Nicholson, Ernest. ed.(2003), *A Century of Theological and Religious Studies in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Malory(2003), *Religion: The Basics*, London: Routledge.
- Nye, Malory(2001), *Multiculturalism and Minority Religions in Britain*, Richmond: Curzon.
- Sanneh, Lamin(1997), *The Crown and the Turban: Muslims and West African Pluralism*, Boulder: Westveiw Press.
- Sanneh, Lamin(1996), *Piety and Power: Muslims and Christians in West Africa*, Maryknoll: Orbis Press.
- Schmidt-Leukel, Perry, ed.(2006), *Buddhism, Christianity, and the Question of Creation*, Aldershop: Ashgate.
- Schmidt-Leukel, Perry, ed.(2005),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Dialogue*, Norwich: SCM Press.
- Schmidt-Leukel, Perry, ed.(2004), *War and Peace in World Religions*, London: SCM Press.
- Segal, Robert(1989), *Religion and the Social Sciences: Essays on the Confrontation*, Atlanta: Brown University.
- Sharpe, Eric(1975),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 London: Duckworth.
- Sutcliffe, Steven J. ed.(2004), *Religion: Empirical Studies*, Hants: Ashgate.
- Sutcliffe, Steven J.(2003), *Children of the New Age*, London: Routledge.
- Ward, Keith(2004). *What the Bible Really Teaches: A Challenge for Fundamentalists*, London: SPCK.
- Ward, Keith(2000), *Christianity: A Short Introduction*, Oxford: Oneworld
- Ward, Keith(1987), *The Turn of the Tide: Christian Belief in Britain Today*, London: BBC Publications.
- Whaling, Frank(1999), "Theological Approaches," ed. by Peter Connoll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Cassell, 1999, pp, 226-274.
- Whaling, Frank(1995), *Theory and Method in Religious Studies: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Berlin: Mouton Publishers.
- Whaling, Frank(1986), *Christian Theology and World Religions: A Global Approach*, Hants: Marshall Pickering,
- Whaling, Frank (1985),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Social Sciences*, vol.

2, Berlin: Mouton Publishers.

Whaling, Frank(1984),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Humanities*, vol. 1, Berlin: Mouton Publishers.

Wyatt, Nick(2005), *The Mythic Mind: Essays on Cosmology and Religion in Ugaritic and Old Testament Literature*, London: Equinox.

Wyatt, Nick(2001), *Space and Time in the Religious Mind of the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Wyatt, Nick(1996), *Myths of Power: A Study of Royal Myth and Ideology in Ugaritic and Biblical Tradition*, Muster: Ugarit-Verlang.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ABSTRACT

---

Retrospect and Prospect in Scottish Study of Religions:  
Tension of Phenomenology, Reductionism, and Cultural Studies

Shin Ahn

This essay explores three types of religious studies (RS) by examining current academic trends and key faculty members of the departments of religious studies in four major Scottish Universities: Edinburgh, Aberdeen, Glasgow, and Stirling.

First, mentioning the tension between RS and theology, I analyze two contrasting historiographies of the British Academy and the British Association of Study of Religions. The former locates RS at the margin of theological studies, whereas the latter emphasizes the autonomous status of RS.

Second, I summarize the past contributions of Scottish RS scholars such as F. McLennan, W. R. Smith, J. Frazer, A. Lang, J. Legge, J. N. Farquhr, W. M. Watt, and D. B. MacDonald. It should be noted that it was not in Scotland but outside Scotland that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creative ideas for RS.

Third, the RS in Edinburgh started from its theological faculty and evolved into a major field under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ligionism and globalism are two main characteristics of the RS

in Edinburgh, which applies phenomenological and the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After the closure in the late 1980s, the renewed RS in Aberdeen and Glasgow uses the reduc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including social science and theology. Without the influence of confessing theology, the RS in Stirling debunks the Western concept of religion and proposes the contextual and cultural studies based on field works.

In conclusion, these three types of RS in Scotland will develop better models for the study of religious phenomena on their own terms.